

←Article

미누코

@iamminuco

권력의 시간표: 파월과 트럼프의 경제 주도권 싸움

1

240

권력의 시간표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물 공사 증언 문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다. 경제 성과의 독점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파월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형사 기소 가

←Article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떠오른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완벽한 타이밍의 비밀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 답이 나온다. 12월 실업률은 4.37%로 하락했다. 생산성(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드는 능력)은 4.9%나 올랐다. 생산비용은 오히려 1.9% 줄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회사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들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를 AI 혁신의 증거로 해석한다. 케빈 하셋이 주장해온 "생산성 기반 성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성공의 순간에 파월을 압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공에는 아버지가 많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파월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공을 나눠 가져야 한다. 트럼프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다.

←Article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긴다.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공식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는 MBS(모기지담보부증권) 2,000억 달러 매입을 지시했다.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만든 투자상품이다.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빌린 돈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정부가 이걸 사면 시장에 그만큼 현금이 풀린다.

이는 사실상 정부 주도 양적완화(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주는 정책)다. 우리 돈으로 260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양적완화의 진짜 의도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단순히 주택금리를 낮추려는 것 이상이라고 본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affordability(구매력) 회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로 기름값을 낮추고, 중국 관세를 유예해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제 주택비용까지 낮추려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한 방향을 향한다.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 생활비 절감이다.

시장이 읽는 미래

투자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난다. 이들은 파월 압박

←Article

일부에서는 6월 이후 연준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케빈 하셋이 더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시장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중소형 성장주들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 구리와 금값도 3개월째 상승세다.

생산성이라는 카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전략은 생산성 향상이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고용도 늘리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생산성 정책이 실패하면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 금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 질문

파월의 독립 선언은 용기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게임의 룰을 알고 있다. 5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앞으로 몇 달은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생산성 정책이 성공할까? 아니면 또 다른 버블의 시작일까?

답은 파월이 마지막까지 데이터에 따른 결정을 고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Article

파월의 독립 선언은 용기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게임의 룰을 알고 있다. 5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앞으로 몇 달은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생산성 정책이 성공할까? 아니면 또 다른 버블의 시작일까?

답은 파월이 마지막까지 데이터에 따른 결정을 고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Want to publish your own Article?

[Upgrade to Premium](#)

5:38 PM · Jan 12, 2026 · 240 Views